

보육실습 현장에서 실습생이 들려주는 스트레스와 대처

Stress and Coping Associated with a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acticum :
The Student Teacher's Perspective

김선영(Sun-Young Kim)¹⁾

서원경(Won-Kyung Seo)²⁾

ABSTRACT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d the causes of student teacher stress during an early childhood teaching practicum and investigated the ways in which student teachers cope with this stress. Four student teachers in the same practicum placement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The findings revealed that stress arose over a variety of concerns including both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related to the teaching practice and the challenges involved in establish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cooperating teacher, the parents and staff. The stress experienced by the student teacher was accompanied by physical symptoms such as exhaustion, fatigue, and the onset of vulnerability to colds. However, the students were found to be generally unsuccessful in managing their stress effectively. The results suggest that attempts to improve the practicum environment should be accompanied by academic interests and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se stresses and that there is a clear need for programs designed to assist student teachers develop stress management skills.

Key Words : 실습생(student teacher), 실습 스트레스(practicum stress), 대처(coping), 보육 실습(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acticum).

I. 서 론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의 실습은 보육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예비
보육교사가 이수한 교과목, 훈련, 경험 등을 중
합하고 반영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현장의 수련과

¹⁾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²⁾ 중앙청사한빛어린이집 시설장

Corresponding Author : Sun-Young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50-3 Namgajwadong,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E-mail : sunyoung@mju.ac.kr

정이다(Machado & Botnarescue, 2008). 예비 보육교사는 보육실습을 통하여 보육의 실제 현장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실제로 영유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데 필요한 것을 계획, 준비, 수행하는 것까지의 모든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육실습은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사 양성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보육실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보육실습과 보육효능감의 관계를 조사한 현정환(2003)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실습 후 학생들은 영유아를 이해하고 영유아를 잘 지도할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과 수업 준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보육효능감이 상승하였다. 반면에, 박성미(2002)는 보육실습에 대한 실습생의 인식과 요구에 관한 조사에서, 실습생은 실습 활동 내용 중 정리정돈 및 청소가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 간식 및 급식지도, 잡무 보조 순이어서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게 되고 실습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다. 김선혜와 김규수(2008)의 연구에서는 보육실습을 통해 경험하는 예비보육교사의 갈등은 자신과의 갈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아와의 갈등, 지도교사와의 갈등, 기관과의 갈등, 동료실습생과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연화·최경애와 오애순(2004) 그리고 최경애와 오애순(2000)의 연구에서도 보육실습생은 보육활동 지도 이외에 잡무 보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실습의 부정적 측면이 시사되었다. 또한, 이미화·임승렬·조형숙·유은영과 송신영(2007)이 유아교사 양성대학 50개 대학의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육실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요 요인은 실습현장의 열악한 질적 수준, 실습현장과 양성대학의 협력 부족, 실습지도 교사의 능력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됨이 시사되었다.

한편,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실습의 중요성과 함께 실습 개선을 위해 실습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더불어 Capel(1997), D'Rozario와 Wong(1996), MacDonald(1993), Miller와 Fraser(2000), Morton, Vesco, Williams과 Awender(1997), 그리고 Murray-Harvey, Slee, Silins, Lawson, Banfield와 Russell(1999) 등에 의해 교생의 교육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예비교사는 실습을 교사양성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면서도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예비유아교사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습은 이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Edward, 1993; Sumsion & Thomas, 1999). Lazarus(1983/1991)가 스트레스를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인간과 환경간의 관계로서 정의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습 스트레스란 실습생으로서의 직무 수행의 어느 국면에서 야기된 긴장, 욕구좌절, 불안, 분노와 의기소침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습 교사의 보편적인 스트레스는 주로 많은 시간과 활력을 소모해야만 하고, 기록할 것이 많고, 실습 지도교사의 기대가 불명확하고, 평가 받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자기-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교수실제에서 직면하는 문제 등에 관련된 것이다(Sumsion & Thomas, 1999).

실습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스트레스 대처로까지 확대되었다.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으로서, 그 대처 방식은 자신의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기술 등의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 자원 등의 환경적 자원에 의하여 결정된다(Lazarus, 1983/ 1991). 그러므로 실습생의 스트레스 대처는 보육실습 경험의 질적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실습생 스트레스가 효과적으로 관리 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는 교육실습 경험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다(Sumsion & Thomas, 1999). 반면에, 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는 실습생의 동기부여와 노력을 향상시켜 전문성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것이다(Sumsion & Thomas, 1999).

실습생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MacDonald(1993)의 연구에서 실습생들은 지도교사와의 의사소통, 조직에 대한 순응, 솔선, 목표 설정, 긴장 완화 기술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습생들은 역할의 애매모호함, 지도교사의 기대를 파악하는 것, 조직에 순응하는 것으로부터의 스트레스는 지도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이나 솔선을 통해서 완화시켰다. 또한, 실습생들은 실습과정의 평가와 역할 설정에 초점을 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상, 요가, 운동 등을 통하여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하였다. Murray-Harvey와 동료(1999)의 연구에서는 실습생들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개인적, 전문적, 사회적, 제도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습생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하여 실제로 생각하고, 활동적이거나 정적인 신체 활동을 하며, 낙천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의 개인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다. 실습생들은 실습교사로서의 일반적인 책임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문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

해 수업 준비에 임함으로써 전문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였고, 친구나 가족들과 의논하거나 사교적 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사회적인 대처전략도 사용하였다. 또한, 실습생들은 실습지도 체제 하에서 지도교사와 이야기하고, 지도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습생들이 평가한 가장 중요한 대처 전략은 지도교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행동 관리, 교육과정 지식, 가족의 지원, 동료 실습생과의 실습경험 공유, 명상과 같은 긴장 완화, 실습교과목 담당 교수의 지원, 자기반성, 기분전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umsion과 Thomas(1999)는 교생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로부터의 제안이 실습 맥락, 구조 그리고 필요조건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한점을 지적하고, 대신에 실습생이 실습 스트레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의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발달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실습생을 대상으로 하여 근육 이완과 평화로운 장면을 마음에 그리는 시각적 심상에 초점을 둔 스트레스 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비 유아교사의 실습의 스트레스와 그 대처에 대한 이해는 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습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유아 교사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예비 유아교사 실습생이 실습기간동안에 직면하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 실습생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다. 단지 보육 실습 관

련연구(박성미, 2002; 유연화·최경애·오애순, 2004; 최경애·오애순, 2000)와 유치원 교육실습 관련 연구(최미숙·황운세, 2005; 염지숙, 2003; 오선영, 2003)로부터 실습 교사들은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는 정도이다. 또한, 이제까지의 보육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습내용(유연화·최경애·오애순, 2004; 최경애·오애순, 2000), 실습 후의 실습생의 실습에 대한 인식이나 요구(박성미, 2002; 이행숙, 2005), 보육효능감과 보육실습과의 관계(현정환, 2003), 실습지도교사와의 갈등(김선혜·김규수, 2008) 등으로서 실습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실습생이 보육실습 현장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를 살펴봄으로써, 보육실습 경험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보육실습 현장에서의 실습생의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실습 스트레스로 인하여 보육실습생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보육실습생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동일 보육시설의 정규 보육실습에 참여한 4년제 대학 아동학 전공 실습생 4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습생 1과 실습생 2는 2008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정규실습에 참여하였고 실습생 3과 실습생 4는 2008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규실습에 참여하였다. 실습생 1과 실습생 2는 학교 수업 중 2~3회 정도 학교 인근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환경을 돌아보고 영유아를 관찰해 본 경험은 있으나 보육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으며, 사전실습을 하지 않았다. 실습생 1은 만 2세반에, 실습생 2는 만 4세반에 배정되었다. 실습생 1과 실습생 2는 모두 타지방에서 올라와 부모님 없이 취업을 했거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언니, 동생들과 자취를 하고 있었다. 실습생 3과 실습생 4는 정규 실습 전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동일 보육시설의 정규실습을 진행할 학급에서 주 1회 총 8회 동안 사전실습을 하였다. 사전 실습은 영유아 관찰, 활동 관찰, 일과 관찰 등 주로 참관 위주로 진행되었다. 실습생 3은 만 1세반에, 실습생 4는 만 3세반에 배정되었다. 실습생들은 대부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학력	사전실습 여부	정규실습 시기	정규실습시 담당 학급	이수 교과목 현황	거주 현황
실습생 1	4년제 아동학과 재학 4학년생	실시하지 않음	2008. 04. 01 ~ 04. 28	만 2세반	- 법적인 최저학점만 이수	타지방에서 올라와 부모님 없이 취업을 했거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언니, 동생들과 자취
실습생 2				만 4세반	- 어린이집 수업실제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편임	동생들과 자취
실습생 3				만 1세반		부모님과 함께 거주
실습생 4				만 3세반		

분 실습학기 전까지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과목 중에서 교육영역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법적인 최저학점만 이수하여, 즉 언어, 수, 음률, 미술, 교과교재 개발 등 어린이집 수업의 실제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편이었다.

2. 실습 보육시설

연구 참여자가 실습 지도를 받은 보육시설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영유아 260명이 보육되고 교직원 40명이 재직 하는 직장어린이집으로 2007년 2월에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 시설장은 정규실습 전에 실습생 모두에게 실습 시 유의사항, 실습 일정, 과제 수행 방법 등을 전달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진행하였다. 정규실습 과정 동안 실습생에게 영유아, 환경, 일과를 관찰하는 참관 수업에 참여하여 매일 일일보육일지 및 영유아 관찰을 기록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부분수업 2회, 연계수업2회, 종일수업1회, 교구 제작 1회 등 실제 지도 실습을 실습 과정 중에 포함하였고 연계 수업 및 종일 수업 시에는 전이활동도 계획하도록 하였다. 실습생들은 배정된 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보육시간 전의 보육실 점검과 보육시간 후의 청소를 하였다. 실습기관에는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실습생들에게 보육실외의 청소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며, 잡무를 보조하는 일도 없었다. 영유아 낮잠 시간에는 지도교사의 교수자료를 함께 준비하거나 영유아가 사용하는 책을 보수하였다. 실습생이 근무 시간 중 특히 낮잠 시간에 자신이 수업할 내용과 관련한 준비를 하거나 일일실습일지를 쓰는 등의 실습과제를 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았다. 실습 중에 제작되는 교구, 교수자료를 위한 자료는 어린이집 물품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옷감 등 어린이집에 없는 물품은 실습생이 직접 사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습생에게 실비를 지급하였다.

본 연구의 실습시설에서는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교사만이 실습지도를 하는 방침이 마련되어 있었다. 실습생 2와 실습생 3의 지도교사는 4년제 아동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실습생 1의 지도교사는 4년제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었고 실습생 4의 지도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교사였다. 실습생 3의 지도교사는 근무기간이 3년, 실습생 1과 실습생 2의 지도교사는 5년, 실습생 4의 지도교사는 6년이었다. 모든 실습 지도교사는 보육실습기관의 실습 방침에 따라 매일 실습생에게 피드백을 주었으며 실습 계획서를 일주일 정도 미리 받아 수정하도록 하였다. 실습지도교사는 주 1회, 실습지도 내용과 진행상황을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논의하였다.

3. 연구절차

1) 심층면접

보육실습 현장에서 실습생의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습생은 이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실습생 당 약 1시간 정도 오후 자유선택활동 이후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주 3회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연구자와의 신뢰와 자연스런 분위기 형성을 위한 비구조적인 면접으로 진행되다가 점차 핵심적인 쟁점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실습생의 경험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개방적 질문과 반구조화된 질문이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의 내용은 실습생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대처방안이었다. 심층 면접은 실습생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이후에 전사(transcribe)하였다.

2) 자료 분석

수집된 면접 자료는 줄단위 분석을 하여 ‘지도교사의 지적’, ‘아이들의 무시’ 등 실습생들이 직접 사용한 언어로 핵심 단어들을 찾고 핵심 단어 간의 연관성을 웹으로 표현함으로써 서로 공통되는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 하였다. 이렇게 기록된 범주들을 이용하여 자료 전체를 개방코딩 한 후 해당 범주로 나눈 자료의 적절성을 재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면접 내용의 분석과 의미 도출에 대한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인 실습생들에게 전사 자료 또는 해석 자료에 대한 검토를 받는 연구 참여자 검증과정(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일주일 단위로 정리된 기록들을 가지고 자료 분석을 하면서 모호한 자료나 내용이 있으면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연구자의 기록 및 해석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유아교사교육 전문가와 함께 범주내용을 검토(peer debriefing)하는 과정(Bogdan & Biklen, 1992)이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교육 전공자 1인에게 연구의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검토 받는 외부 감사(audit) 방법을 활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실습생의 스트레스 요인

1) 실습 과제와 실습 일정에 대한 막막함

실습생은 실습 초기에 현장에서 과제로 제시되는 수업계획서, 교구제작 계획서, 관찰 기록,

일일 보육일지 등에 대해 당황하며 과제를 일정대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오늘 한 달 스케줄표와 일지, 사례기록 양식을 보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했어요. 특히 교구제작 계획서를 실습 둘째 날에 내야 하는데 가능할지 막막했어요. 스케줄 대로 다 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실습생 1, 2008.4.1).

오늘 실습 스케줄표를 받았는데 ‘이젠 앞으로 뭔가 꾸러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실습기간 동안 해야 할 활동이나 교구를 지도선생님이 대충 정해 주셨는데 너무 막막해요(실습생 3, 2008.7.1).

특히, 실습생은 교수실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아서 전공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관련 실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였다.

학교에서 교구제작 수업을 들어 본적 없어서 교보문고에 가서 자료를 찾았는데 실제로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요. 아이들 연령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발달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안해서 교구를 선택하는 것이 힘이 든 것 같아요(실습생 3, 2008.7.3).

2) 지도교사와의 첫 만남 시간의 촉박함

실습 초기에 실습생은 시설장에게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후에, 지도교사와의 첫 만남에서 실제 진행되는 실습과정과 해당 학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전달받았다. 이 첫 만남에서 실습생은 지도교사가 여러 업무로 인해 시간이 촉박하여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이 전달됨에 따라 첫 만남이 촉박하게 이루어진다고 느끼며 불안해하였다.

첫 날 지도선생님이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선생님의 시간이 촉박해서 저도 덩달아 불안했

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질문을 할 수 없었어요(실습생 1, 2008.4.1).

지도선생님과의 오리엔테이션에 많은 것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질문하지 못했어요(실습생 2, 2008.4.1).

3) 늘 자신 없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실습생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중에 자신이 어떻게 상호작용 해야 할지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어 자신의 상호작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내리기 보다는 지도교사의 평가에 의해 문제점을 인식하며 상호작용 문제에 대해 고민하였다.

낮잠 시간 평가 때에 지도선생님께서 제가 강압적이거나 강요적으로 “잘 놀 수 있지?”라는 문장을 사용하거나 예/아니오를 정해 놓은 질문을 했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했어요(실습생 1, 2008.4.15).

또한, 실습생은 자유선택활동과 대소집단 활동 시 개입, 또래 간 갈등, 영유아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개입 시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 바람직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판단 내리기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도 어려워하였다.

월요일에 대문놀이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노래도 다 알고 있어서 스스로 대문 놀이를 잘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악보를 보고 실로폰을 치는 것도 스스로 알아서 잘 찾구요. 그래서 많이 개입을 안했는데 아직 지도선생님 평가를 받지 않아서 맞게 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실습생 2, 2008.4.15).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지도선생님이 안 보실 때 민성이가 다른 아이들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실습생 4, 2008.7.8).

모든 실습생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혼란

을 보였으나, 사전실습에 참가한 실습생은 그렇지 않은 실습생보다 상호작용 관련 혼란이 보다 적은 가운데 정규실습을 시작하였다.

실습 전에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배워갈 수 있게 해야 할지, 아이들의 행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느 정도에서 제한해야 하는 것 등이 궁금했는데 사전 실습을 통해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아 덜 두려워요(실습생 4, 2008.7.1).

만1세 아이들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지만 저는 그래도 사전실습 때문에 아이들 특성도 조금씩 알고 있어서 좋아요(실습생 3, 2008.7.1).

4) 영유아에게 지도교사와는 달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나

실습생은 영유아가 지도교사에게 나타내는 언행과 자신에게 나타내는 언행이 다르다고 느꼈다. 영유아가 지도교사와 함께 있을 때는 학습의 규칙과 성인에 대한 예의를 지켜서 말하고 행동하나, 실습생과 함께 있을 때는 학습 규칙을 무시하여 행동하려고 하고 실습생을 무시, 거부하거나 공격적하는 행동도 나타내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낮잠 시간에 지도선생님께서 자리를 비우자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아이들이 떠들었어요. 다른 친구에게 방해되니 조용히 하자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고 토닥여 주려고 손을 대니 손을 쳐내었어요(실습생 1, 2008.4.22).

오늘 종일 수업을 했는데 유난히 갈등 상황이 많았어요. 지도선생님이 수업하실 땐 그렇지 않았는데 똑같은 놀잇감을 두 개 이상 준비했는데도 아이들이 한 영역에 많이 몰려서 갈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즐겁게 놀이를 못해서 정말 속상해요. 건이가 밀가루 찌기틀을 모두 가지고 가서 갈등 상황이 나타났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에게 나눠주자고 해도 싫다고 하구. 근데 지도선생님이 오셔서 “건아, 이 찌기틀

은 병아리반 친구들이 모두 같이 쓰는 물건이야. 바구니에 넣어 놓고 한 개씩 꺼내 쓰자”라고 이야기 했더니 바로 바구니에 찌기들을 넣어 상황이 종료되더라구요(실습생 3, 2008.7.25).

5) 잘 가르치려고 애는 쓰나 난관에 부딪치는 나

실습 초기를 지나 실습 진행시기 동안 실습생은 부분수업, 연계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실습생은 영유아와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으나 진행해야 하는 수업의 양이 많고, 일정에도 여유가 없으며, 교구제작이나 수업 계획 시 참고 자료를 찾는 것도 시간상 어려워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지고, 지도교사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도 받게 되었다. 또한 실습생은 수업을 계획할 때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힘들어하였으며 효율적인 교수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하였다. 계획서와 교수자료가 잘 준비되었다하더라도 실제 수업은 계획한 만큼 실행되지 못하거나 영유아의 반응이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타나 실습생은 좌절하였다.

이번 주 수업 2가지, 다음 주 수업 2가지가 있고 매 활동마다 교구를 제작해야 해요. 실습이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활동을 계획할수록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상호작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요. 욕심이 나고 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싶은데 의욕만큼 활동계획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실습생 4, 2008.7.14).

이야기 나누기를 계획해서 하는데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을 잘 안 해요. 이야기 나누기가 끝나고 제가 제시한 교구로 놀이를 시작했는데 어려운 것 같아 교구 중에 질문에 답하는 것을 수정했는데도 어려워하더라구요. 규칙 인지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속상했어요(실습생 2, 2008 .4.11).

6) 쉬울 것 같은 돌봄의 어려움

실습생은 영유아의 배변, 기저귀 갈기, 손 씻기, 급간식 먹기, 이 닦기, 옷 갈아입기 등 일상생활지도는 특별한 지식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영역의 교사 활동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와 교사가 도움을 주는 정도를 조절하여야 됨을 인식하고 나서 당황하였다.

그 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아이들 소변 보고, 대변 볼 때 어떻게 닦아 주어야 하는지, 이 닦기는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지 등을 잘 몰라서 힘이 들었어요(실습생 1, 2008.4.1).

화장실에 영아가 가고 싶다고 해서 데려갔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때 알아차렸어요(실습생 2,2008.4.3).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눈여겨보기는 했는데 아직도 기저귀갈이는 교사가 하는 것처럼 익숙치 않아서 걱정되요. 언제 누구를 갈아주어야 하는지도 걱정이고……(실습생 3, 2008.7.21).

7) 지도교사와 나는 불편한 사이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실습생은 지도교사를 자신의 모든 부분을 평가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도교사가 항상 지켜보는 가운데 생활하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실습생은 지도교사의 피드백은 모두 자신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도선생님이 무서워요. 예전보다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적 받는 일이 계속 있으니까 무서운 것 같아요. 아는 것을 지적 받기도 하고 모르는 것을 지적 받기도 해요. 평가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활동을 진행하다가도 지도선생님을 자꾸 쳐다보게 되요.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실습생 1, 2008.4.15).

저는 지도선생님 그 자체가 어려워요. 학교에서 배웠지만 아직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

이 드는데다가 선생님이 알려 주시는 내용이 바로 실천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긴장하게 되요. 조심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실습생 4, 2008.7.8).

모든 게 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되지 않고 의식하게 되요(실습생 3, 2008.7.23).

종일 보육에 참여하는 지도교사에게 실습 관련 궁금증을 질문하기 위한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못해 지도교사의 지시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실수와 지도교사의 지적으로 이어진다고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고 계획서를 쓰다보면 모호한 부분이 생기게 되요. 여러 차례 묻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가끔 지금 물어도 되나 싶어 그냥 지나치게 되기도 해요. 그러면 꼭 수정할 부분이 생겨요(실습생 4, 2008.7.8).

8) 어린이집에서의 서글픈 객지살이

실습생은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며 배운다’는 교사이면서 동시에 학생이라는 특수한 위치로 인해 타교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타교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소모품을 찾으러 교사실에 갔거든요. 지도선생님이 미리 전화를 해 놓으셨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께서 “선생님 왜 오셨어요?”라며 싫어하시는 기색이 있어서 서러웠어요. 제가 만드는 것이 여기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구요(실습생 3, 2008.7.25).

또한 자신의 의견을 지도교사와 타교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지도교사나 타교직원이 전해주는 간식, 급식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먹는 경우도 나타났다.

유아반에서는 식당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급

식을 덜어 먹을 수 있어 좋았는데 영아반은 지도선생님께서 미리 담아 놓으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담겨 있어 놀랐는데 조금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배가 불러요(실습생 2, 2008.4.3).

제가 오늘 아침밥을 못 먹고 왔거든요. 지도선생님이 아침 간식을 챙겨주셨는데 아이들 양만큼 주셨어요. 먹으면서 배가 안 찬다고 생각했는데 점심시간 때까지 기다리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실습생 3, 2008.7.3).

9) 학부모에게 교사로 대우 받고 싶은 나, 그렇지 않은 학부모

실습생은 담당 학급 영유아의 부모에게 교사로서 대우 받고 싶으나 실습생을 무시하는 학부모의 태도에 상처 받았다.

부모님들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실습생 3, 2008.7.3).

가끔 부모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성현이 어머니께 인사드렸더니 “응”하고 지나가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실습생 1, 2008.4.28).

10) 종일 수업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부담감 속의 나

실습생은 실제지도실습의 마지막 과정인 종일 수업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쳐 지금까지 과정에서 습득한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교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부담감을 가졌다.

종일 수업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전날 두 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한번이라도 더 계획을 짜야 했고요. 이전에 부분수업과 연계수업은 과정 중의 일부뿐이니까 실수해도 되지만 종일은 지금까지의 액기스니까 정말 실수하면 안된다고 생각했거든요(실습생 1, 2008.4.28).

실습생은 종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담감 때문에 준비한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 힘들어하였다.

수업하는 동안 계속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준비한 만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아요. 종일 수업은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욕심만큼 잘 안 되서 속상해요(실습생 4, 2008.7.28).

11)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가족, 친구들

실습기간 동안에 실습생의 일상생활은 실습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평상시와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나타내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실습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하여 가족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때로 교수 자료의 준비에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 하였다.

집이 지방인데 아버지께서 편찮으시거든요. 자주 내려가서 봐야 하는데 실습 때문에 계속 내려가지 못했어요. 전화도 잘 못 하구.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속상하구요(실습생 1, 2008.4.11).

교구로 형깁 동화책을 만들었거든요. 만드는데 밥 먹고 자고 교회 가는 시간을 빼고는 주말의 모든 시간을 다 사용했어요. 쌍둥이 언니, 엄마, 아빠 가족 모두가 총동원 되서 만들었어요. 급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가족들에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요구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서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어요(실습생 3, 2008.7.8).

2. 스트레스로 인하여 실습생에게 나타나는 증상

1) 실습이 끝나야 낫는 병

실습생은 실습과정 중 감기, 눈병, 피부 발진

등 잦은 질병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생은 심신의 힘듦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한번 발병된 질병은 실습기간 중 계속 낫지 않고 지속되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인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가 계속 낫지를 않아요. 감기에 걸리니까 몸이 더 힘들어요. 아이들한테 옮길까봐 걱정 되요(실습생 1, 2008.4.7).

힘드니까 자꾸 여드름이 나요. 실습 가기 전에 친구들이 정말 피부 좋다고 했는데 뺨 주변에 여드름이 자꾸 나요(실습생 2, 2008.4.15).

2)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 나

실습생은 보육실습시설에서 귀가하여 매일 보육실습일지, 영유아 관찰기록을 정리하고 각종 과제를 고민하고 실행하면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였다. 또한 다음날 수업을 실행하는 날이면 잠자리에 들어서도 수업 관련 생각을 하는 등 긴장도가 높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습생은 수면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자고 싶어서 힘들어요. 과제와 교구제작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교구제작을 하기 위해서 언니들이 도와줬는데도 새벽2시까지 했어요(실습생 2, 2008.4.7).

어제 새벽4시까지 수업 걱정에 잠이 안 왔어요. 지금은 풀리워요(실습생 1, 2008.4.24).

잠이 모자라서 전철에서 졸아요. 어제는 내리지 못하고 지나칠 뻔 했어요(실습생 3, 2008.7.10).

3) 어제든 오늘도 내일도 피로에 지친 나

실습 과정이 익숙해짐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몸이 피로에 젖어 있는 듯한 증상이 계속 되었다.

똑같은 일상인데 몸이 자꾸 쳐져요. 익숙해졌는데도 자꾸 피곤해요(실습생 1, 2008.4.15).

4) 점점 친구가 되어가는 비만

실습생은 실습 과제를 준비하느라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서 간단한 군것질을 하는 일이 많았다.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피로감을 달래주는 당분이 많은 사탕, 초콜릿, 과자 등을 많이 먹으면서 체중도 증가하였다.

살찌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실습 나오기 전에 건강한 한 달을 보내자고 마음먹고 아침밥을 꼭 먹거든요. 어린이집에 와서 오전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오후 간식 먹은 다음에 저녁 6시 즈음에 우유나 요쿠르트가 나오잖아요. 그거 두 개 먹고 집에 가서 저녁밥 먹고 과일이나 초콜릿같은 단 음식으로 야식을 먹어요(실습생 2, 2008.4.15).

3. 실습생의 스트레스 대처

1) 가능한 쉬어요

실습생은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시간이 날 때마다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주말에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교구를 준비하는데 간단한 거라 주말에 빨리 끝내고 조금 쉴 수 있었어요. 에너지가 충전 된 것 같아요(실습생 3, 2008.7.14).

2) 몰아서 자요

실습 제출 과제의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계획된 내용을 실행하기 전 긴장으로 인한 수면 부족 및 스트레스를 주말 늦잠이나 낮잠으로 해결하였다.

잠 모자르는 걸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 늦게까지 자는 걸로 해결해요. 그렇게 자지 않으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지쳐요(실습생 2, 2008.4.11).

3) 수다를 떨어요

실습 과정의 힘들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보육 실습시설에서 실습 중인 친구들과의 전화 통화

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다.

같은 연령 학급에서 실습하는 다른 기관 친구들과 전화해요. 너희는 지금 “어떤 거 준비해? 나도 해봐야겠다”면서 정보도 공유해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실습생 1, 2008.4.11).

자신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고 모든 것을 수용해 주시는 부모님과과의 대화를 통하여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엄마, 아빠와 얘기하면서 풀어요. 엄마는 가장 편안한 이야기 상대이구요. 가장 친한 친구는 이쪽 전공이 아니어서 가끔 엉뚱한 조언을 하기는 해서 답답하지만 후련하기도 해요(실습생 3, 2008.7.14).

4) 아이들에게서 위로 받아요

힘든 하루 일과 중에서 영유아가 실습생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애정표현을 하면 기분이 전환되고 힘들음이 줄어드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늘 요리사 모자 만들기 활동을 했어요. 좋았던 것은 진이가 평상시에는 표정이 없고 말이 없는 아이인데 저한테 와서 너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 해 줘서 힘이 되었어요(실습생 2, 2008.4.17).

저를 때리던 영아에게 많이 안아주고 “예쁘다”라고 말해 주니 “선생님, 사랑해요”라며 안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할 때 정말 좋았어요(실습생 1, 2008.4.24).

5) 설당의 유혹! 무절제한 나

실습생은 실습과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쉽게 사서 먹을 수 있는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은 다음에 초콜릿, 사탕, 과자 같은 걸 많이 먹게 되요. 저녁밥을 먹어서 배는 부르는데 실습 과제를 하면서는 자꾸 군것질을 하게 되요(실습생 1, 2008.4.15).

6) 지도교사로부터의 감동의 물결 타기

지도교사가 수업 준비 및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를 하거나 실습생의 힘듦을 이해해주는 언행을 할 때 실습생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잠 시간에 일지 작성에 대해 지도를 받았는데 그 때는 조금 속상했거든요. 근데 하루일과가 끝나고 몸이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 담임선생님이 일지가 실습생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 몸이 많이 힘들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쉬워질거라고 격려해 주시니까 마음이 사르르 풀렸어요(실습생 1, 2008.4.3).

오늘 종일수업 평가를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 실습생하고 같이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격려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선생님의 한 마디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실습생 3, 2008.7.25).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실습생들은 보육실습 상황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 교사의 실습 스트레스를 연구한 Capel(1997), D'Rozario와 Wong(1996), MacDonald(1993), Miller와 Fraser(2000), Morton, Vesco, Williams와 Awender(1997), Murray-Harvey, Silins와 Saebel(1999), Edwards(1993), 그리고 Sumsion과 Thomas(1999) 등의 국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예비교사에게 실습은 상당한 스트레스의 원천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습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실습생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실습생의 스트레스는 바람직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 교수방법 실행의 미숙, 일상생활 지도 방법의 미숙 등의 교수실제에 관련된 전

공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습생이 실습 과정 중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일상지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 연구(이행숙, 2005)나 실습 스트레스는 주로 유아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에 관련된 것임을 보고한 국외 연구(Edwards, 1993; Sumsion & Thomas, 1999)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본 실습생들의 스트레스는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도교사, 지도교사이외의 타교직원, 학부모와의 관계 등의 어린이집을 둘러싼 여러 인적 환경 그리고 실습 상황 때문에 야기되는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변화에 의해서도 유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실습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사실은 교사교육자나 실습기관이 실습 상황의 다각적인 측면에 대해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습생의 스트레스가 교수실제에 관련된 전공 지식과 능력의 부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로부터 실습생의 교수실제 관련 교과목 이수와 사전실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실제로, 본 연구 대상은 실습 이전 학기까지 교수실제 관련 교과목을 충분하게 이수하지 않았던 실습생들이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적 기본 이수 교육과정의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특히 교육영역의 법적인 최저학점인 3과목 9학점은 상향조정되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영역의 교과목은 교수실제 관련 교과목으로서 이론과 더불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제에 초점을 맞추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전실습을 경험한 실습생들은 그렇지 않은 실습생들보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되는 혼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보육

실습이 진행된 어린이집에서 사전실습을 경험한 실습생과 그렇지 않은 실습생 모두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실습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사전실습의 참여만이 아니라 내실화된 사전실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본 연구 참여자가 참여했던 사전실습이 주로 참관 중심이었음을 감안할 때, 사전실습은 참관 이상으로 정규실습을 대비하는 효율적인 실습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습생이 전공 관련 지식 및 교수실제 능력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지도교사, 지도교사의 타교직원, 부모 등의 보육실습기관에서 직면하게 될 인적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실습생이 느끼는 지도교사의 태도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도교사의 평가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Miller와 Fraser(2000) 그리고 MacDonald(1993) 등의 국외 연구에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또한 MacDonald(1993), Murray-Harvey와 동료(1999)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실습생들도 지도교사와의 관계가 스트레스 요인인 반면, 동시에 스트레스 대처 방안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지도교사의 지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국외연구에서는 실습생의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도교사에 한정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지도교사와 타직원, 부모 등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보육실습 상황의 다각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대학과 실습기관은 실습생의 스트레스가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실습생이 보육실습기관의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과 바람직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대학에선 실습을 앞둔 예비 유아교사에게 실습상황의 인적환경에 대해 숙지하고 필요한 대인관계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실습기관에서는 실습 전에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습생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직원 교육과 점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실습생이 지도교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가장 길고 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도교사에 대한 실습생과의 대인관계 형성 관련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영유아에게는 실습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에 관련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습생의 스트레스 요인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실습 초반에는 실습을 완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실습 중반부에는 실제지도실습이 진행되면서 수업계획과 진행과 관련된 부담감으로, 실습 마무리 시기에는 실습을 바람직하게 종료하고 싶은 바람으로 스트레스 양상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실습생의 발달 단계는 실습 기간 초기에는 적응기, 실습 진행 기간에는 율동적 경험기와 혼란기, 실습 마무리 시기에는 미래를 위한 준비기로 4단계로 나타난다고 밝힌 류철선(1998)의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실습 스트레스도 실습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실습 초기에는 보육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정확한 실습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실습생의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습 진행 시기에는 보육교사양성과정에서 실습생의 실제지도실습을 진행하도록 실습 담당 지도 교수의 조력이 필요하다. 마무리 시기에는 실습생이 종일 수업을 통해 지금까지의 실습을 바람직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가 계획단계부터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습생은 청소 및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진행된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보육실외의 기타 청소 및 정리정돈,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부가하지 않은 시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실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가 실습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보육실습 선행연구(박성미, 2002; 최경애·오애순, 2000)에 의하면, 실습생이 잡무 및 청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잡무나 청소도 실습생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잡무나 청소와 관련된 실습생 스트레스 요인은 국외 연구에서는 보고되지 않음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 실습생은 스트레스로 인해 실습 기간 중 잦은 질병에 노출되었고 잠의 부족, 피로 누적을 호소하였으며 늦게까지 실습 관련 활동을 준비하면서 잦은 군것질로 비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습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 대처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생들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직면하는 지도교사의 피드백에 반대하기, 주도적으로 야기하기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법(Macdonald, 1993)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의 근원을 피한 소극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실습생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습스트레스에 대처했다고 보고한 MacDonald(1993), Murray-Harvey와 동료(1999) 등의 연구결과와 매우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학이 보육실습 이전에 실습생이 실습 스트레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Sumision과 Thomas(1999)가 주장했듯이, 예비 유아교사의 실습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효율적인 실습스트레스 대처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처전략과 더불어 앞으로는 보육실습생이 개별적으로 실습스트레스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실습생, 대학, 보육실습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조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습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보육실습은 실습생들에게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현장 수련과정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습생들은 정서적 측면에서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알려진 것 이상의 많은 압박 하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개인적인 정체감과 자아-가치감은 매우 상처입기 쉬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신체적인 건강에도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Miller와 Fraser(2000)가 주장했듯이, 교사 교육자인 우리에게 실습에 관련한 도덕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교사교육자로서 우리는 예비 유아교사들에게 현장 수련과정으로서의 보육실습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보육실습 지도의 질적 수준의 제고만을 염두에 둔 채로, 실습생들이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아교사 교육자는 예비교사가 보육실습을 통해 어떠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이러한 스트레스를 통해 유능하고 배려 깊고 반성적인 교사로 발달하는지 아닌지,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실습생들이 보육실습에 성공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육실습은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서뿐 아니라,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장 수련과정이다. 또한, 실습 과정 중 대부분의 실습생에게 실습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실습생은 스트레스를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으로만 인식되거나, 대학과 실습기관은 모든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보육실습에 대한 관점을 실습의 내용이나 지도 지침에만 국한된 것으로부터 실습생의 스트레스로 넓히고, 성공적인 보육실습을 위해 이러한 스트레스가 예방되고 관리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보육실습을 지도하는 기관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인한 보육실습 지도의 질적 수준 차이와 보육실습 지도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 보육실습 지도지침”(한국보육진흥원, 2010)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실습지도 지침의 개발은 보육실습이 실습생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보육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실습지도 지침과 더불어, 예비유아교사가 실습 중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성공적인 보육실습을 위해 실습생과 실습 지도교사, 시설장의 파트너십이 구축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한데(Brown & Danaher, 2008), 이는 실습생의 스트레스 관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보육실습의 관점이 실습생의 스트레스로 확대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과 실제적 쟁점이 부각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배경의 실습생과 지도교사, 실습기관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습생의 스트레스가 보육실습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선혜 · 김규수(2008). 유아교육기관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인식과 수행에 따른 예비교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17(2), 223-233.
- 류철선(1998). 유아교육과 학생의 교육실습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6, 287-310.
- 박성미(2002). 보육실습에 대한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영유아보육연구**, 8, 12-143.
- 오선영(2003). 교육실습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육신념과 역할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7(1), 69-91.
- 이미화 · 임승렬 · 조형숙 · 유은영 · 송신영(2007). **육아지원인력 양성 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연구보고 2007-05). 서울 :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행숙(2005). 어린이집 보육실습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4, 137-165.
- 염지숙(2003). 유아교육실습 : 예비교사들의 경험 이야기. **한국교육교육연구**, 20(2), 223-248.
- 유연화 · 최경애 · 오애순(2004). 보육실습교사가 경험한 실습유형에 따른 보육실습실태. **한국영유아보육학**, 37, 47-66.
- 최경애 · 오애순(2000).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실습 내용 연구. **학생생활연구**(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5(1), 19-40.
- 최미숙 · 황윤세(2005). 유아교육실습생이 지각한 자아개념 및 갈등이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5), 351-365.
- 현정환(2003). 보육실습이 예비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6), 117-131.
- Bogdan, R. C., & Biklen, S. K.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2nd ed.). Boston : Allyn and Bacon.
- Brown, A., & Danaher, P. (2008). Towards collaborative professional learning in the first yea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acticum : issues in negotiating the multiple interests of stakeholder feedback. *Asia-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

- cation*, 36(2), 147-161.
- Capel, S. A. (1997). Changes in students' anxieties and concerns after their first and second teaching practices. *Educational Research*, 39, 211-228.
- D'Rozario, V., & Wong, A. F. L. (1996). *A study of practicum-related stresses in a sample of first year student teachers in Singapor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Singapore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nd Australi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Education, Singapore, 25-29, November 1996.
- Edward, M. (1993). What is wrong with practicum? Some reflections. *South 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1(1), 33-43.
- Lazarus, R. S.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김정희(역). 서울 대광문화사(1983년 원저 발간).
- MacDonald, C. J. (1993). Copying with stress during the teaching practicum : The student teacher's perspective.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4), 407-418.
- Machado, J., & Botnarescue, H. (2008). *Student teaching : Early childhood practicum guide* (6th ed.). Clifton Park, NY : Thomson Delmar Learning.
- Miller, D., & Fraser, E. (2000). Stress associated with being a student teacher : Opening out the perspective. *Scottish Educational Review*, 32(2), 142-154.
- Morton, L. L., Vesco, R., Williams, N. H., & Awender, M. A. (1997). Student teacher anxieties related to class management, pedagogy, evaluation, and staff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69-89.
- Murray-Harvey, R., Slee, P. T., Lawson, M. J., Silins, H., Banfield, G., & Russell, A. (1999). *Under Stress : The concerns and coping strategies of teacher education students*. Australia : Flinders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s No. ED 432541).
- Sumsion, J., & Thomas, D. (1999). Managing student teacher stress associated with the practicum.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20(3), 327-336.

2009년 10월 31일 투고, 2010년 3월 24일 수정
2010년 3월 26일 채택